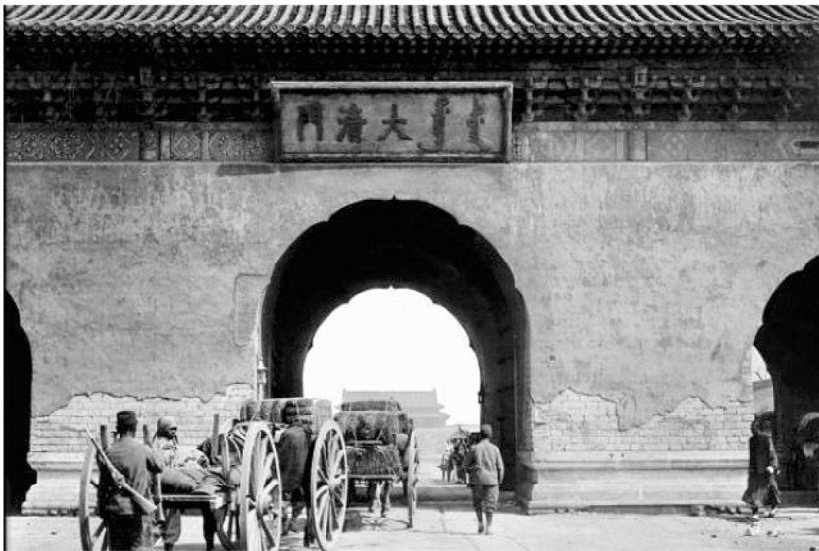


청사공정 10년의 빛과 그림자



조영헌

(고려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chokra@korea.ac.kr)



I. 왜 지금 다시 '청사' 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63년, 개혁개방 34년째에 해당하는 2012년에 중국은 胡錦濤 시대를 이어 習近平을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가 들어섰고, 바야흐로 중국의 위상은 'G2 (양대 강국)' 혹은 'Chimerica'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라고 불릴 만큼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다분히 현재적이거나 서구 중심적인 관점일 수 있다. 즉 최근 중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하여 '급부상' 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중국의 '崛起'는 과거 中華帝國의 회복, 혹은 '盛唐' 혹은 '康乾盛世' 로 대표되는 영광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관점의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어찌되었든 1911년 청조가 멸망한 지 거의 딱 100년이 되는 2012년 중국에서는 『淸史』가 편찬되기로 예정되었다. 18세기 ‘康乾盛世’를 표상하는 淸朝에 대한 正史를 중국이 21세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려는 차나에 새롭게 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건국이념으로 집어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정치적 지향성과 ‘大一統’을 지향했던 淸朝의 특성이 착종되어 그 결과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¹⁾ 게다가 이 사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다.²⁾

하지만 2012년 말 현재까지 새롭게 편찬된 『淸史』의 결과물은 발표되지 않았다. 2002년 12월 國家淸史編纂委員會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이후 줄곧, 10년 만인 2012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발표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체적인 결과물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결과물의 형태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國家淸史纂修工程’(이하 <淸史工程>)의 과정과 파생 결과물을 분석해 보면 향후 공개될 『淸史』의 내용을 대략적이거나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II장에서 왜 2002년 중국 정부가 <淸史工程>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배경적 고찰로 1920년대 후반 발행된 『淸史稿』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이를 보완하려 했던 중국 사학계의 노력을 1949년 이전과 이후, 대만과 대륙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2002년부터 추진된 <청사공정>이 2012년까지 남긴 성과물을 정리·분석하고, 마지막 IV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사공정>이 배태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그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당연히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淸史』 편찬의 발미를 제공했던 『淸史稿』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 『청사고』에서 『청사』로의 변화 노력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正史는 司馬遷이 쓴 『史記』를 시작으로 『사기』의 紀傳體 방식을 따라 明朝의 역사, 즉 『明史』까지 이어진 일련의 ‘正統 歷史’ 서적이다. 종종 官撰 史書로 인

1) 統一的 多民族 國家論 즉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인식은 건국 직후인 1954년 헌법에 반영된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민족 관계 처리의 기본 틀로 작용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윤희탁,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장’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2006, pp.113-131 참조. 宮中書 등 시각적 이미지에 투영된 청조의 大一統 정책 에 대해서는 정석범, 『康雍乾時代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미술사학』 23, 2009 참조.

2) Mao, Liping & Ma, Zhao, “Writing History in the Digital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and the Digitization of Qing Archives”, *History Compass*, Vol. 10: Number 5, 2012, p.368.

식되기도 하지만, 唐 이전에는 사마천의 『사기』, 班固의 『漢書』라 불리는 것처럼 私撰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唐太宗 시기 官撰 史書로 편찬된 『隋書』 등 5개 正史의 동시적 출간 이후부터 형성된 官撰史書의 전통은 청대에 『明史』가 편찬될 때까지 이어졌다.³⁾ 관찬 사서로 출간된다는 것은 방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체계적인 역사 서술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대한 자료를 동원해 단기간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용이한 반면 撰者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평가가 드러나기는 어려웠다.

正史에 대한 통괄적인 호칭은 宋代에 형성되었다.⁴⁾ 『사기』 이래 당시까지 편찬된 『新唐書』, 『新五代史』까지 17개의 역사를 ‘17史’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王鳴盛(1722-1797)의 『십칠사상각』은 이에 대한 校勘 결과를 담은 것이다. 청대에 『명사』 310권이 완성될 때, 『宋史』, 『遼史』, 『金史』, 『元史』까지 포함하여 정사는 모두 22종류로 늘어났다. 고증학적 시각을 가진 錢大昕(1728-1804)의 『二十二史考異』나 趙翼(1724-1824)의 『廿二史劄記』는 『史記』부터 『明史』까지 22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校勘書였다. 하지만 이후 五代 시대 官撰이었던 『舊唐書』를 간행하고, 『永樂大典』 가운데 宋代에 官撰한 『舊五代史』를 輯錄하고 武英殿에서 나온 역사서를 합각하여 24사라는 이름이 형성되었다. 청 조정이 『四庫全書總目』을 편찬하면서 “무릇 天子의 裁決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함부로 실지 않았다. 대개 正史體는 존엄하여 그 뜻이 經에 필적하며 尙典에 실리지 않은 것은 감히 사사로이 보낼 수 없으니, 이것이 稗官野記와 다른 이유”라고 하면서 ‘24사’는 國定の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⁵⁾ 이후 1920년 가소민이 외국의 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元史』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몽골제국 시대의 기록을 보충하여 출간한 『新元史』까지 합하여 ‘25사’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표1 참조)

24사건, 25사건, 正史에 포괄되는 시대는 明朝까지였다. 즉 淸朝에 대해서는 正史로 불릴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청조 멸망 이후 民國時代에 진행된 淸史에 대한 편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易代修史(朝代가 바뀌면 史書를 編修한다)’의 전통에 따라 신해혁명 이후 袁世凱 정부도 1914년 淸史館을 설치하고 漢軍旗人이자 進士 출신이었던 趙爾巽을 관장으로 삼아 淸史 편찬에 들어갔고⁶⁾, 그 결과물이 1928년 『淸史稿』로 나왔다. 내용상으로 상당히 충실하고 체제 면에서도 이전 시대와 다른 독창성이 있었음에도 불

3) 唐 貞觀3년에 官撰修史의 전범으로 편찬된 5종의 정사는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隋書』이다. 이후 출간된 正史 가운데 官撰의 예외로 손꼽히는 것은 歐陽脩가 撰한 『新五代史』이다.

4) 이하 사학사에 관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참조.

5) 高國抗 지음, 오상훈·이개석 옮김, 『중국사학사』(하), 풀빛 1998, pp.301-305, 364-380.

6) 당시 淸史館은 中華民國 國務院이 발의하고 大總統 원세개가 비준하여 1914년 7월 설립되었다. 편찬인원으로는 館長 1인(趙爾巽), 總撰 7인(가소민 등), 纂修兼總撰 22인, 協修 21인, 校勘兼協修 17인, 후에 새로 조빙된 19인 등 7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명단은 張永江 著, 村上信明 譯, 『近百年來における中國の淸史編纂事業と最新の進展狀況(上)』, 『滿族史研究』 4, 2005, p.4 참조.

〈표 1〉 중국 역대 정사의 편찬시기와 내용 구성

번호	서명	최종 편찬 시기	편찬자	구 성		17사	22사	25사
				총권수	내 용			
1	史記	漢	司馬遷	130권	本紀12, 表10, 書8, 世家30, 列傳70	○	△	☆
2	漢書	後漢	班固	120권	本紀12, 表8, 志10, 傳70	○	△	☆
3	後漢書	宋	范曄	120권	本紀10, 志30, 傳80	○	△	☆
4	三國志	西晉	陳壽	65권	魏志30(4本紀26列傳), 蜀志15, 吳志20	○	△	☆
5	晉書	唐	房玄齡 等	130권	帝紀10, 志20, 列傳70, 載記30	○	△	☆
6	宋書	梁	沈約	120권	本紀10, 志30, 列傳60	○	△	☆
7	南齊書	梁	蕭子顯	59권	本紀8, 志11, 列傳40	○	△	☆
8	梁書	唐	姚思廉	56권	本紀6, 列傳50	○	△	☆
9	陳書	唐	姚思廉	36권	本紀6, 列傳30	○	△	☆
10	魏書	北齊	魏收	56권	帝紀6, 列傳50	○	△	☆
11	北齊書	唐	李百藥	50권	帝紀8, 列傳42	○	△	☆
12	周書	唐	令狐德棼	50권	帝紀8, 列傳42	○	△	☆
13	南史	唐	李延壽	80권	本紀10, 列傳70	○	△	☆
14	北史	唐	李延壽	100권	本紀12, 列傳87, 列傳1	○	△	☆
15	隋書	唐	魏徵 等	85권	帝紀5, 志30, 列傳50	○	△	☆
16	新唐書	宋	歐陽修, 宋祁	225권	本紀10, 志50, 表15, 列傳150	○	△	☆
17	新五代史	宋	歐陽修	74권	本紀12, 列傳45, 考3, 世家 및 年譜11, 四夷附錄3	○	△	☆
18	宋史	元	脫脫 等	496권	本紀47, 志162, 表32, 列傳250		△	☆
19	遼史	元	脫脫 等	160권	本紀12, 志32, 表8, 列傳45		△	☆
20	金史	元	脫脫 等	135권	本紀19, 志39, 列傳73		△	☆
21	元史	明	宋濂 等	210권	本紀47, 志58, 表8, 列傳97		△	☆
22	明史	清	張廷玉 等	310권	本紀19, 志77, 表9, 列傳205		△	☆
23	舊唐書	後晉	劉昫 等	200권	本紀20, 志30, 列傳150			☆
24	舊五代史	宋	薛居正	150권	本紀61, 志12, 列傳77			☆
25	新元史	中華民國	가소민 等	257권	本紀26, 志70, 表7, 列傳154			☆
26	清史稿	中華民國	趙爾巽 等	536권	本紀25, 志142, 表53, 列傳316			

구하고⁷⁾, 약점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淸朝의 입장을 간직한 채 편찬되었으므로 淸朝 및 滿洲族을 옹호하는 관점이 많았고, 따라서 ‘反滿’의 구호를 내세웠던 太平天國과 革命派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게다가 편찬될 당시 정치적으로 軍閥이 난립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격화되는 혼란기여서 균형 있고 통일적인 서술이 갖추어질 정도로 총체적인 검토를 할 여유가 없었다. 1914년 착수되어 1927년 편찬까지 총 13년이 소요되었으나 袁世凱가 사망한 1916년 이후 청사 편찬 과정은 비정상적인 자금 동원과 졸속

7) 가령 『明史』에 없던 「邦交志」, 「交通志」의 신설이나 淸朝의 특성을 고려한 「藩部傳」, 「軍機大臣表」, 「交聘表」 등이 신설된 것을 말한다. 또한 1914년에 발표된 초안 이후 사회 각계의 반응을 반영하여 삭제된 志(가령 「國語」, 「氏族」, 「外教」)와 傳(「明遺臣」, 「卓行」, 「貨殖」, 「客卿」, 「叛臣」)도 있는데, 「청사고」 초안과 개정안에 대한 정리는 張永江, 2005, p.8 참조.

행정으로 난황을 겪었던 것이다.⁸⁾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편찬 직후인 1928년부터 『청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등장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 시작은 國民黨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북경을 점령했던 국민당의 北伐軍은 故宮接收委員會를 통해 淸史館을 접수했다. 그리고는 이듬해인 1929년 국민당은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反革命, 反漢族, 先人の遺業을 경시했음, 형식의 부적합, 각종 착오 등 모두 19항목의 이유를 들어 『청사고』를 비판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⁹⁾ 물론 이러한 비판에는 어느 정도 진실성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풍부한 역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故宮과 淸史館의 자료를 수도 南京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려 했던 蔣介石의 개입과 이에 대한 저항 사이의 갈등이 깔려 있었다.¹⁰⁾ 따라서 최근까지도 淸朝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정리하여 보전했다는 점에서 『청사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도 강하다.¹¹⁾

어찌되었든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에서 민국시대 내내 『청사고』에 대한 판매 금지를 견지하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가령 1934년 行政院에서 『청사고』에 대한 검열 기구를 조직하여 그 결과를 『檢校述略』 1冊, 『檢正表』 9冊으로 출간했고, 1939년에는 〈國史籌備委員會〉를 설립해 『청사고』에 대한 심사를 추진했으며, 1945년 重慶의 中國史學會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청사고』를 수정하여 재출간하겠다는 의견을 教育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국내외 정치적인 혼란과 국민당 내부의 여력 부족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학술계 인사들은 대부분 『청사고』 개정에 근본적으로 찬성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撰者들의 정치적 경향으로 볼 때 淸朝를 긍정하고 民國을 무시하기 때문이며, 둘째 학술적으로 전체적인 교열과 상호 협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술되어 전체적인 조화가 없기 때문이며, 셋째 급하게 출간되면서 사실의 오류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¹²⁾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청사고』에 대한 개정 작업은 이루어져야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줄곧 『청사고』에 대한 개정 작업은 대륙과 대만에서 모두 진행되었다. 일찌감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쪽은 대만이

8) 정혜중, 「중국에서의 『청사고』 연구와 평가」,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40-44.

9) 그 구체적인 내용은 張永江 2005, p.17 참조.

10) 張永江 2005, pp.17-18.

11) 이에 대해서는 정혜중, 2008, pp.48-55 참조.

12) 張永江 2005, pp.18-21.

었다.¹³⁾ 이미 민국시대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사고』 改修를 추진해온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의 이전 이후, 中華民國 정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표명하기 위해 더 강하게 역사 문제에 개입했다. 하지만 1959년 國史館에서는 회의를 열고, 현 상태에서 『청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은 불가능하기에 부분적인 오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960년에는 國防研究院 文化講座教授였던 彭國棟과 國防研究院 主任 장기윤 2인이 뜻을 합하여 淸史 편수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蔣介石에게 보고했다. 당시 總統 兼 國防研究院 院長이었던 장개석은 이를 받아들여 1961년 작업 개시를 선포하고, 특히 주요한 세 시기(明清交替期, 太平天國, 辛亥革命)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구성된 淸史編纂委員會는 장기윤이 주임, 蕭一山이 부주임, 彭國棟이 부주임 겸 總編纂을 맡으면서, 전체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출간은 1961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8책의 『淸史』로 진행되었다. 1처럼 1년 만에 『청사』가 완성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사실상 『청사고』의 부분적인 수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사고』와 크게 달라진 점이려면 마지막 8冊에 수록된 補編으로, 「南明紀」 5卷, 「明遺臣列傳」 2卷, 「鄭成功載記」 2卷, 「洪秀全載記」 8卷, 「革命黨人列傳」 4卷이 추가된 것이다. 補編은 65萬字 분량으로, 전체의 10%에 약간 못 미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사고』에 비하여 『청사』는 補編을 중심으로 약 20여권이 늘어났으나, 전체 내용의 80%는 사실상 『청사고』이고, 나머지 20%가 增補 혹은 수정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1년이라는 작업 시간과 내용상의 變異를 고려할 때, 1961년 출간된 『청사』 8책은 장개석 정부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여 창졸간에 완성된 수정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¹⁴⁾

이처럼 대만에서의 새로운 『청사』 편찬이 ‘실패’로 판명되자, 學界를 중심으로 淸史館을 재건해서 淸史를 새롭게 편찬하는 계획을 잠시 방기하는 대신 『청사고』를 세밀하게 수정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자료나 인력 면에서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만 사회가 안정되었고, 반면 문화사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뒷받쳐줄 경제력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당시 저명한 역사학자 錢穆이 故宮에 소장된 淸史館 당안과 國史館 당안을 이용하여 『청사고』에 校註를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자, 1978년 臺灣故宮博物院과 國史館이 공동으로 『청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校註 작업을 시작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작업은 官撰의 사서편찬으로 진행되어온 正史 편찬 사업이 아니라 故宮博物院과 國史館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정사의 수정 작업이었다. 어쨌든 1단계로,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 동안 故宮博物

13) 이하 대만에서의 『청사』 개수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張永江 著, 大坪慶之 譯, 「近百年來における中國の淸史編纂事業と最新の進展狀況(下)」, 『滿族史研究』 5, 2006, pp.1-12 참조.

14) 1960년 결성된 淸史編纂委員會 23명의 명단과 이들이 1년 동안 나누어서 진행했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張永江, 2006, pp.3-4 참조.

院에서 자기 기관에서 소장한 각종 당안(內閣府院당, 軍機處당, 宮中당, 淸國史館당 등)을 이용하여 교주 작업을 진행하였고, 2단계로, 교주 작업이 끝난 草稿를 國史館이 순차적으로 받아 7년 동안 전문가 집단을 총동원하여 6단계에 걸친 엄격한 審査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87년 1만2천여 자에 이르는 『淸史稿校註』 15冊이 출간되었다. 이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淸사고』의 오류 가운데 47,339건을 수정하고, 『淸實錄』을 비롯하여 각종 당안, 그리고 當代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까지 반영했기에 학술계로부터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며,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 『淸사고』의 범주 안에서 진행된 校註이므로, 『淸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原書에 담긴 중대한 과실이나 관점 등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淸사고교주』는 향후 진행될 대형 淸사편찬을 위한 중요한 준비작업 임에는 틀림없었다.

『淸사고교주』를 발행한 國史館에서는 이를 기초로 『新淸史』를 편찬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착수하려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대만 政府는 이전처럼 史書 편찬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淸代 이전의 역사연구를 축소시키는 현상이 강화되었다. 2005년 國史館은 『新淸史地理志圖集』을 출간하는 등 간헐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는 있으나,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臺灣의 淸史편찬 사업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대만에서의 淸사 편찬 노력과 비교할 때, 대륙에서의 淸사 편찬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는 1949년 이후 中華人民共和國의 정치적 상황, 특별히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文化大革命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및 지식 사회가 받은 타격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대륙에서 제대로 된 淸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일단락된 1978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까지 淸史 관련 연구가 완전히 침체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기 학술계에 영향을 미쳤던 정치인들과 역사가들의 관점을 보면, 淸朝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강했다. 즉 기본적으로 만주족은 異民族이라 간주하고, 만주족 지배층의 중국 통일과 18세기 통치력의 강화가 중국의 생산력을 파괴하고 생산방식을 낙후시켜 결국 중국의 발전을 100여 년이나 지체시켰다는 관점을 견지했다.¹⁶⁾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소련과의 외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전 시기 淸과 제정러시아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가령 차르 시대의 ‘侵華史’ 연구 성과물이 대량 생산되었다. 이처럼 대단히 편협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에 예외적인 사례로 1962년 출간된 蕭一山

15) 王鍾翰, 『淸史滿族史講義稿』, 鷺江出版社, 2006, p.45.

16) 李治亭, 「給淸史以準確的歷史定位」, 『河南師範大學學報』 2005-6, p.9.

의 『清代通史』(5卷, 臺灣商務印書館)가 있다. 이는 文化, 政治, 국민의 生計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한 청대의 通史로, 사학사적으로 청대를 근대적인 역사 연구방법에 의거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蕭一山은 清朝를 ‘중국 近世史’로 규정했는데, 이 저서는 『사기』 체제에서 이탈한 첫 번째 왕조사로 볼 수 있었다.¹⁷⁾

1978년 이전에도 국가 주도의 청사 편찬에 대한 시도는 크게 두 차례 이루어졌다. 新中國 성립 이후 국가 지도자 가운데 1인이었던 董必武는 中國共產黨史와 清史에 대한 대대적인 편찬을 건의하고 1958년에는 朱恩來가 당시 北京市 副市長이었던 저명 역사가 오함에게 清史編纂 문제를 의뢰했으나, 정치적인 혼란 상황 속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후 1965년 총리 朱恩來와 副主席 董必武가 청사 편찬을 제안하자, 정식으로 清史編纂委員會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당시 위원회는 7인(郭影秋·尹達·關山復·劉大年·동동·劉導生·戴逸)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연소(당시 39세)로 참여했던 戴逸이 이후 2002년의 〈清史工程〉을 주도했던 것과 관련하여 기억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文化大革命의 여파로 청사편찬 사업은 중지되고, 清史研究小組는 北京師範大學에 기반을 두고 이후 中國人民大學 清史研究所의 前身이 되었다.¹⁸⁾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이 표방된 이후 본격적인 清史 연구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문을 연 中國人民大學에 1978년 清史研究所가 정식 설립되면서 碩士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1984년부터는 博士 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청사에 대한 최신 연구의 확대를 위해 『清史研究集』을 정기적으로 간행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中國社會科學院의 歷史研究所 소속 清史研究室의 활동 역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1979년부터 『清史論叢』을 발간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清史資料』를 출간하고(7집까지) 中國第一歷史당안館과 함께 1980년부터 『清代당안史料叢編』을 출간했다(14집까지).¹⁹⁾

이후 발표된 청사 연구의 기반이 되었던 주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984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清代人物傳稿』 20권은 아편전쟁 이전 인물로 10권을, 그 이후 인물로 10권의 분량을 채워 출간되었다. 주요 특징은 중국이 설정한 11가지 유형의 인물로 유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²⁰⁾ 1991년에는 王戎笙 主編의 『清代全史』 10권(遼陽人民出版社)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17) 유장근,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청사 연구동향과 만주족의 지배 문제」,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137.

18) 張永江, 2006, pp.12-14.

19) 『清代당안史料叢編』 1-14집과 『清史資料』 1-7집의 전체 목록은 [부록1]과 [부록2]로 첨부해놓았다.

20) 11가지 유형은 황제, 정치적인 작용을 한 후비와 황공귀족 및 태감, 대신, 반청 및 반제 투쟁 인물, 소수민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 저명 학자, 개혁혁명파, 외국인선교사와 상인과 사절, 기타이다.

제6차 5개년 계획 기간 국가의 사회과학 기금 중 역사학 전공 중점항목의 지원을 받은 종합적 성격의 청대사였다. 2000년에는 中國人民大學 清史研究所에서 편찬한 『清史編年』 12권(中國人民大學出版社)이 출간되었는데, 順治朝부터 光緒朝까지 編年體 사료 모음집이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혁명사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사적 연구방법론이 도입되고, 새로운 연구 분야로 사회구제 혹은 복지와 관련된 연구, 생태환경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²¹⁾ 이처럼 청사 연구가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것은 개혁개방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역사가 정치로부터 상당 부분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기 때문이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이후에도 2002년 <청사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20여년 동안 국가 주도의 청사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성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대체로 대규모 편찬사업을 진행할 정도의 經費가 충분치 않고, 학술적으로도 清代 전기와 후기를 아우르는 연구 인력과 성과가 고르지 않으며, 사회 각 방면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²³⁾ 그만큼 새롭게 淸史를 편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Ⅲ. 2002년 이래 <淸史工程>의 추진과 그 진행 결과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청사 편수에 불을 붙이고 실제 그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은 戴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戴逸은 1965년 결성된 바 있던 淸史編纂委員會의 7인 위원 중 한 명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淸史 편수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2001년 3월 개최된 ‘兩會’, 즉 제9회 全國人民代表大會와 政治協商會議 제4차 회의에 발맞추어 人民大會代表이자 中國人民大學 교수였던 李文海와 政治協商會議代表이자 北京大學 교수였던 王曉秋에게 청사편찬사업을 공식적인 議案으로 국가에 제출할 것을 의탁했다.²⁴⁾ 戴逸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국가 권력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淸史編纂이 어렵다는 점을 체감했던 것이다. ‘兩會’가 끝난 지 10일도 채 안되어 戴逸과 李文海는 『人民日報』에 장문의 논설을 게재하여 대형 淸史編纂에 대한 의견과 구성을 선명하게 밝혔고, 이에 호응하여 2001년 5월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가 개최한 「淸史編纂研討會」에 전국에서 150여 명의 淸史 연구자가 모여 새로운 청사의 의의, 시기, 원칙, 체제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학술계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2002년 3월 淸史編纂籌備工作領導小組를 文化部에 설치

2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유장근, 2008, pp.155-170 참조.

22) 馮爾康, 「淸史研究與政治」, 『史學月刊』 2005-3, p.11.

23) 張永江, 2006, p.16.

24) 이하 <청사공정>의 초기 단계와 전체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張永江, 2006을 참조했다.

할 것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江澤民, 朱鎔基, 胡錦濤, 李嵐清은 문화부가 제출한 청사편찬 계획을 최종 승인해주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25명의 淸史 및 近代史 연구자로 구성된 國家淸史編纂委員會(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主任 戴逸(中國人民大學)을 중심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주임 3인은 馬大正(社會科學院), 朱誠如(故宮博物院), 成崇德(中國人民大學)이며, 위원은 馮爾康(南開大學), 李治亭(吉林社會科學院), 鄒愛蓮(中國第一歷史檔案館) 등 모두 21인이다.

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사공정>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했다. 이 사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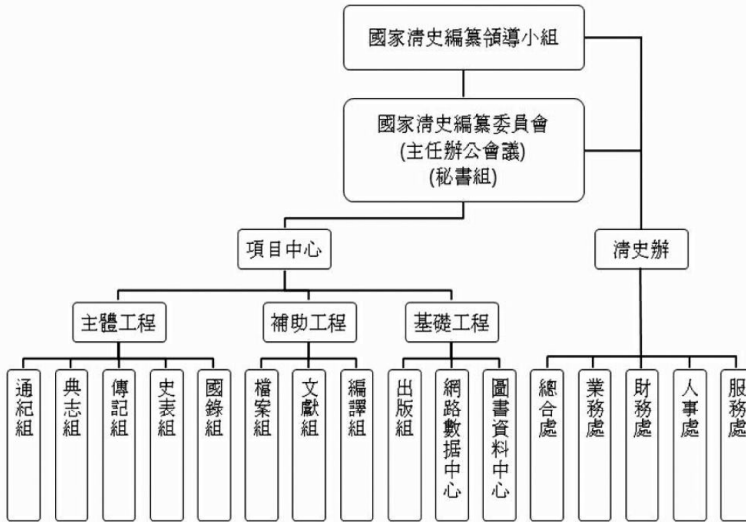
첫째, 사회와 학계에서 원하는 새로운 淸史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용 가능한 학술적 자원 현황(가령 資料, 人材, 研究成果 등)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소 기구를 운영했는데, 體裁體例工作小組은 반년 동안 3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사 서술을 위해 ‘新總合體’라는 새로운 體裁를 확정했다.²⁵⁾ 學術調查小組는 도합 11편의 보고서와 자료를 작성했는데, 주로 1980~90년대 이래 러시아어, 일본어, 영어로 발표된 청사 연구의 경향성, 청사에 관한 중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20세기에 출판된 通史 형태의 청사 관련 저작·평론·논문의 목록 및 색인이 포함되었다.

둘째, 작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청사 사업은 크게 主體, 基礎, 補助의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主體 부분은 3천만 字에 달하는 『淸사』의 본체로, 통기·전지·전기·사표·도록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基礎 부분은 文獻·당안의 정리 및 국외 문헌의 번역에 해당한다. 補助 부분은 홈페이지, 도서자료, 연구 성과의 출판에 해당한다. 동시에 각 업무의 재무·인사·자산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國家淸史編纂領導小組 아래 淸史編纂領導小組辦公室(淸史辦)을 설치하고, 5개 부분의 사무를 분담시켰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사실상 <청사공정>의 핵심적 결과물은 주체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방대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특한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했다. 즉 청사편찬 사업의 전체(당안·문헌의 정리 및 국외 문헌의 번역까지 포함)를 수백 종류의 작은 프로젝트로 나누고 각 프로젝트의 목표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별 책임 제도를 구축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 수준 있는 연구자를 가능한 많이 동원하기 위해 제1차 참고작업 분야의 프로젝트에는

25) 新總合體란 통기, 전지, 전기, 사표, 도록의 5부분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紀傳體와 현대적인 章節體를 혼합하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표 2〉 〈청사공정〉 조직표



공모 방식을 도입해 경쟁적으로 신청을 받아 우수한 연구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권리·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특정 과제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즉 공모와 위탁이라는 방식을 병용한 것이다. 각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대부분 대륙의 청사 연구자이지만 홍콩·마카오·대만의 학자도 14명 참여하고 있다.²⁶⁾

보조 공정에는 세 가지 업무가 포함된다. 당안組는 中國第一歷史當安館에 소장된 청대 관련 당안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출간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그 결과로 2003년 간행된 『庚子事變 清宮當安彙編』 18卷(中國人民大學出版社)은 기존 의화단 관련 자료에서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화단 사건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전쟁배상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즉 청 정부가 열강의 요구와 악화되는 지방질서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잘 드러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의 부담을 중앙에서 각 성으로 분담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어, 이 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당시 열강의 침략이 중국 지방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간행된 『清宮熱河當安』은 강화-용정-건륭으로 이어지는 시기 熱河에 피서산장을 건립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청 황제들의 활동에 관한 당안 자료를 모아 놓았다. 청대 열치는 여러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청조의 제2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

26) 그 중 한편은 圖錄에 포함된 『臺灣地區清代圖片』으로(張永江, 2006, p.24), 臺灣 학자가 참여했을 것이다.

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는 <청사공정>이 청조의 다민족 정체성을 문헌 출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 외에도 2005년에는 『清代軍機處電報彙編』 40卷(中國人民大學出版社)이 출간되었는데, 이 안에는 1884년에서 1911년까지 약 30년 동안 오고 간 약 40,000건이 넘는 전보 기록이 담겨있다. 각종 민감한 사항, 가령 변경 문제, 외국인과 그들의 물산에 대한 정보, 외교 담판, 군사 행동, 지방에서 발생한 반란 관련 보고 내용이 풍부하다. 2011년에는 『清代雲南稿本史料』(上海辭書出版社)가 출간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간된 당안組에서 출간한 당안 목록은 [부록3]에 정리해놓았다. 文獻組는 당안 자료를 제외한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출간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2010년부터 <清史研究叢書>가 출간되어 2012년까지 모두 4종의 연구서가 나왔다.²⁸⁾ 이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戴逸 주편으로 중국인민대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清前期天地會研究』, 『乾隆帝及其時代』 등 13종의 연구서가 출간되다가 중단된 것을, <청사공정>을 통해 다시 복원한 것이다.

編譯組의 주된 업무는 외국에서 진행된 청사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청사』 편수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여 출간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2005년에는 <中日學者清史研究座談會>를 개최하고²⁹⁾,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청대문헌을 대량 수장한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문헌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편역조의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자국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청사 연구의 흐름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이다.³⁰⁾ 이를 위해 편역조는 ① 『清史譯叢』 시리즈와 ② 『編譯叢刊』 시리즈를 끊임없이 발행하고 종종 ③ 清史論著目錄系列을 출간했다.

① 『清史譯叢』은 제1집이 2004년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서 출간된 후 2011년 齊魯書社에서 『清史譯叢』 제10집까지 출간된 상태다.³¹⁾ 1집에서 2010년 발행된 8집까지는 모두 中國人民大學出版社에서 출간되었으나, 2010년 출간된 9집은 浙江古籍出版社에서 나오고 2011

27) Zhao Ma,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A PROSPEROUS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Vol. 29 Issue 1, 2008, pp.130-131. 만주족 지배층이 수도 北京과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盛京 이외에 承德의 열하까지 3개의 통치 거점을 마련하고 巡幸하면서 일종의 多京制를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현,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중 외 지음,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참조.

28) 劉鳳雲·劉文鵬, 『清朝의 國家認同- 新清史』 研究與爭鳴』; 劉仲華, 『漢宋之間: 翁方綱學術思想研究』; 潘向明, 『清代新疆和卓叛亂研究』; 劉鳳雲, 『北京與江戶- 17-18世紀的城市空間』.

29) 이 座談會는 2005년 1월 7-8일 북경 서북 외곽의 香山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가 일본에 소장된 청사 관련 문헌자료를 어떻게 수집·정리·이용할 것인가? 둘째가 일본 청사연구의 중요한 성과와 최근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참가한 일본 연구자는 濱島敦俊, 岩井茂樹, 夫馬進, 松浦章 등 10명이었다. 좌담 내용에 대해서는 加藤直人, 「中日學者清史研究座談會-『清史』編纂をめぐる日中學術協力の可能性」, 『滿族史研究』 4, 2005, pp.210-217 참조.

30) 馬大正, 『世界視野與清史纂修工程』,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31) 이하 『清史譯叢』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준갑,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상황, 2002-2009」, 김형중 외 지음,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53-61 참조.

년의 10집은 齊魯書社에서 출간되었다. 그동안 中國人民大學에 집중된 역할을 점차 분산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淸史 연구를 주도하는 외국 연구는 臺灣, 美國, 日本의 3개국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하지만,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청사역총 편집진은 「序言」에서 해외 청사 연구의 학술사조, 최신 유행문제, 핫이슈, 주요 성과를 소개하여 청사찬

수 공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취급항목과 간행목적을 밝혔다.³²⁾ 하지만 1집부터 이후의 체제상의 변화가 심하고, 외국어로 쓰여진 논문 중에서 중국학자들의 논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집에서 7집까지의 논저 필자 45명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이 13인(29%), 러시아인과 독일인이 각각 7인(각 15.6%), 영국인이 5인(11%), 프랑스인과 천주교 선교사가 각각 3인(각 6.7%), 중국과 일본인이 각 2인(각 4.4%),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가 각각 1인씩 포함되었다. 서구 연구자의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연구자의 연구물이 번역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일본에서 이루어진 청사연구의 성과는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청사 연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듯하다. 매 회 각국의 연구동향이나 논점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코너가 실리는데, 이 가운데 한국 연구자에 대한 소개는 2건에 불과했다. 제4집에 丘凡眞, 제5집에 車瓊愛의 연구가 요약문 형태로 실린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丘凡眞의 글 「精琪의貨幣改革方案與晚淸幣制問題」는 『近代史研究』 2005년 제3집에 실린 글에 대한 2페이지 요약문이고, 車瓊愛의 글 「德國對義和團運動의鎮壓」는 『義和團研究會通訊』 30기에 실린 글에 대한 2페이지 요약문이다. 즉 한국 학자의 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발행된 연구지 가운데 일부의 글을 선택해서 요약한 것으로, 안타깝게도 한국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청사 연구의 현황이 사실상 중국에 전혀 소개되지 못한 셈이나 다름없다.

② 編譯叢刊 시리즈는 해외의 주요 청사 연구서를 중국어로 번역 출간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최근의 연구 결과물뿐 아니라 청대 쓰여졌던 서구인들의 저술, 즉 자료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 安文思 (Gabriel de Magalhaès, 1609-1677)의 『中國新史』가 2006년 大象出版社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2012년 현재 약 40여종이 번역 출간되었다. (부록 4 참조) 그 제목을 일람해보면, 이 시리즈는 최근 외국의 淸史 연구를 번역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新淸史 찬수에 필요한 淸史 관련 연구서 가운데 번역되지 않은 책을 순차적으로 번역 출간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자별 국적을 보면 포르투갈, 독일,

32) 『淸史譯叢』 각호 첫머리에 수록된 「序言」.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스웨덴까지 다양한 나라의 연구서 및 사료를 번역해 가고 있는데, 이쉽게도 한국 저자의 책은 없었다. 編譯叢刊 委員會를 보면 于沛 교수가 전체 책임자이고, 위원으로 19명이 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은 5명으로, 미국의 孔飛力(Philip Kuhn), 프랑스의 巴斯楚夫人(Marianne Bastid-Bruguere), 독일의 達素彬, 러시아의 米亞斯尼科夫, 영국의 吳芳思(Frances Wood)이다. 학문적 명망과 함께 각국의 협력 체계를 위해 포섭한 인물로 여겨지며, 編譯叢刊의 나라별 특성 역시 위원회의 구성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③ 淸史論著目錄系列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2007년 출간된 馬釗 主編, 『1971-2006年美國淸史論著目錄』(人民出版社)이다. 國家淸史編纂委員會에서 주도하는 淸史論著目錄系列의 일환으로, 그 서문을 보면 “淸史論著目錄系列”에 대한 구상은 2005년 봄에 나왔다고 한다. 그 가운데 1971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淸史 연구의 論著를 망라적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綜合, 政治, 中外關係, 經濟貿易, 民族 등 24개 주제로 분류할 뿐 아니라 文명과 中문을 병기해 놓고 다양한 색인을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 서구 연구자 이름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淸史 연구를 주도하는 외국 연구는 臺灣, 美國, 日本의 3개국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하지만,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³³⁾ 한편 일본 연구에 대한 번역, 참조가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 학계의 오래된 淸史 연구 성과의 축적과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청사공정> 초기단계부터 중국-일본의 청사 연구자들의 협력 가능성이 모색된 바 있고³⁴⁾ 사료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의 협력은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되었다. 가령 청사 관련 당안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는 中國第一歷史당안館은 <청사공정>의 일환으로 당안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 東京大學 史料編纂所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즉 東京大學 史料編纂所에서 소장하고 있는 清代당안 가운데 일본관계 사료를 디지털 화상으로 수집하고 그 목록을 출판하는 계획이다. 또한 2009년 5월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와 日本學士院이 공동 주최하는 <日本關係 清代당안을 둘러싼 國際研究集會>가 개최되고, 당시 中國第一歷史당안館의 鄒愛蓮 館長과 王道瑞 연구원(『歷史당안』 副編輯長) 등이 일본 東洋文化研究所에 가서 <청사공정>과 清代당안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³⁵⁾

33) 馬釗 主編, 『1971-2006年美國淸史論著目錄』, 人民出版社, p.2007, p.1의 出版說明 참조.

34) 이에 대해서는 加藤直人, 「中日學者淸史研究座談」-『淸史』編纂をめぐる日中學術協力の可能性, 『族史研究會 編, 『滿族史研究』 4, 2005 참조.

35) 이에 대해서는 鄒愛蓮, 「日本關係清代당안을めぐり國際研究集會報告 文化遺産の應急的保護 と淸史編纂プロジェクト」,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20, 2010, pp.138-148 참조.

〈표 3〉 새로운 淸史의 구조

(一) 通紀(全8卷)			
第1卷	滿族의 興起와 淸朝의 建立 (1583 ~ 1643年)		計61年
第2卷	淸朝 入關 및 南中國 平定 (1644 ~ 1683年)		計40年
第3卷	康熙 치세와 雍正의 改革 (1684~ 1735年)		計52年
第4卷	乾隆의 全中國 통일 (1736 ~ 1795年)		計60年
第5卷	淸朝의 쇠락 (1796 ~ 1839年)		計44年
第6卷	外國의 武裝 侵略과 國內의 農民戰爭 (1840 ~ 1864年)		計25年
第7卷	淸朝의 自強運動 및 그 失敗 (1865 ~ 1895年)		計31年
第8卷	淸末의 改革과 淸朝의 멸망 (1896 ~ 1912年)		計17年
(二) 典志(全39卷 35志)			
第9卷	天文曆法志	第30卷	財政志
第10卷	地理志	第31卷	漕運·鹽政·錢法志(附 金融)
第11卷	生態環境志	第32卷	宗教志(附 保甲)
第12卷	人口志	第33-34卷	宗教志
第13-14卷	民族志	第35卷	會黨教門志
第15卷	職官志	第36卷	禮俗志
第16卷	法律志	第37卷	教育志
第17卷	八旗志	第38卷	災賑志
第18-19卷	兵志	第39卷	思想文化志
第20卷	邊政志	第40卷	學術志
第21卷	澳門·香港志	第41卷	西學志
第22-23卷	邦交志	第42卷	詩文·小說志
第24卷	華僑志	第43卷	戲曲·書畫志
第25卷	農業志	第44卷	科學技術志
第26卷	手工業志	第45卷	水利志
第27卷	商業志	第46卷	建築志(宮殿·園林·民居 等 포함)
第28卷	對外貿易志	第47卷	醫藥衛生志
第29卷	近代案實業交通志(附 驛遞)		
(三) 傳記(全22卷)			
第48卷	入關前 人物 약 80人	第59卷	同治朝 人物 약 100人
第49卷	順治·康熙朝 人物 약 100人	第60卷	光緒朝 人物 약 100人
第50卷	康熙朝 人物 약 100人	第61卷	光緒朝 人物 약 100人
第51卷	康熙朝 人物 약 100人	第62卷	光緒·宣統朝 人物 약 100人
第52卷	雍正·乾隆朝 人物 약 100人	第63卷	學術 약 250人
第53卷	乾隆朝 人物 약 100人	第64卷	文苑·藝術(包括書畫家·演員) 약 250人
第54卷	乾隆朝 人物 약 100人	第65卷	忠烈·孝義·循吏 약 200人
第55卷	嘉慶朝 人物 약 100人	第66卷	工商·科技 약 200人
第56卷	嘉慶·道光朝 人物 약 100人	第67卷	少數民族·宗教·華僑 약 200人
第57卷	道光朝 人物 약 100人	第68卷	農民領袖·革命黨人·婦女 약 250人
第58卷	咸豐朝 人物 약 100人	第69卷	遺民1(明清之際)·遺民2 (淸·民國之際), 外籍人士 약 250人

(四) 史表(全13卷 29表)

第70-71卷	史事表	第77卷	提督表 / 布政使表 / 按察使表 / 學政表
第72卷	清帝世系表 / 皇子表 / 皇女表	第78卷	中 · 外約章表
第73卷	諸臣封爵表 / 藩部封爵表 / 四大活佛表	第79卷	冊封使表 / 駐外使節表 / 外國駐華使節表
第74卷	議政王大臣表 / 大學士表 / 軍機大臣表 / 總理各國事務大臣表 / 清末內閣表	第80卷	歷科進士表
第75卷	部院大臣表	第81卷	書院學校表 / 清季報刊表
第76卷	總督表 / 巡撫表 / 將軍都統駐防大臣表	第82卷	文禍表 / 教案表

(五) 圖錄(全10卷)

第83卷	興地(疆域 · 山川 · 京師 · 直省等)	第88卷	民俗(行業 · 民族節令等)
第84卷	生産(耕織 · 井鹽 · 盜器 · 農事 · 棉花 · 製茶 · 放牧 · 水利 · 治河 · 晚清工業)	第89卷	建築(宮殿 · 園林 · 陵寢 · 城鎮 · 王府 · 民居 · 名勝等)
第85卷	商貿 外貿	第90卷	藝術(書畫碑刻 · 服飾器皿 · 工藝品 · 戲曲等)
第86卷	典儀(政治制度 및 禮制와 관련한 畫圖, 가령 祭孔 · 祭農 · 祭天 · 藉田 · 大婚 · 巡幸 · 木蘭추선 · 萬壽等)	第91卷	宗教
第87卷	軍事(作戰 · 布防 · 軍器 · 操練等)	第92卷	肖像(畫像 · 사진)

셋째, 새로운 『청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토론하며 확정하는 일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主編을 맡은 戴逸은 清史目錄의 개정을 거듭했고, 2004년 2월에 6번째 수정안을 내놓았다. 전체 92권에 각권 35만자 내외, 총계 3천2백만 자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6번째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通紀, 典志, 傳記, 史表는 紀傳體의 기본 틀을 가져온 것이고, 圖錄이 추가된 것이 이채롭다. 새로운 『청사』의 기본 인식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通紀 8卷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戴逸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興·盛·衰·亡’이라는 구도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누르하치의 기병에서 시작된 興의 국면은 康熙제가 대만을 정복한 이후부터 盛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가, 건륭에서 가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同治3년부터 신해혁명까지 亡이 된다.³⁶⁾

주제별로 묶이는 典志에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듯 새로운 항목이 다수 신설되었다. 生態環境志, 近代案實業交通志, 會黨教門志, 醫藥衛生志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生態環境志는 다분히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할 뿐 아니라 최근 각광을 받는 영역이지만, 역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기존 연구나 관심이 현저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委員會의 리더인 戴逸, 郭成康이 강하게 지지하면서 生態環境志는 通志의 향

36) 戴逸, 「清朝의 興, 盛, 衰, 亡」, 『清史纂修研究與評論』, 2012.

목으로 설정되었고, 陝西師範大學의 西北歷史環境與經濟社會發展研究中心의 朱士光이 책임을 맡아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³⁷⁾

청조의 여러 인물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傳記를 위해 결성된 傳記組에는 2002년 이래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으나, 2009년 현재 潘振平이 組長으로 李治亭, 趙珍 등 모두 8인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근 1년 동안의 모임을 통해 淸一代 1만여 명의 후보 중에서 傳記 인물을 3,500여명으로 압축했다. 인물 선정의 균형을 위해 항목을 모두 30개로 확정했으며, 각 항목당 평균 60명 전후의 인물을 선정했지만 學術 인물과 文藝 인물은 각 250명 전후로 많이 수록되었다.³⁸⁾

〈표 4〉 傳記 항목

	傳記 항목	비고
1	太祖, 太宗朝의 인물	청 12朝 皇帝와 大臣들의 전기. 매 황제마다 100명 내외의 중요 인물을 간추림.
2	順治와 康熙 초기 인물	
3	康熙朝 인물 (상)	
4	康熙朝 인물 (하)	
5	雍正과 乾隆 초기 인물	
6	乾隆朝 인물 (상)	
7	乾隆朝 인물 (하)	
8	嘉慶朝 인물	
9	嘉慶과 道光(아편전쟁 이전) 인물	
10	道光朝 인물	
11	咸豐朝 인물	
12	同治朝 인물	
13	光緒朝 인물 (상)	
14	光緒朝 인물 (하)	
15	光緒, 宣統朝 인물	
16	學術 인물	
17	文苑 인물	
18	循吏, 孝義, 忠烈 인물	
19	工商 인물	
20	科技 인물	
21	少數民族 인물	
22	宗教 인물	
23	華僑 인물	
24	農民領袖 인물	
25	革命黨 인물	
26	婦女 인물	
27	遺民 인물	
28	外國人 (外籍 인물)	
29	諸藝 (1)	2006년 겨울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 사회 하층부에 속한 민간의 藝人 항목으로 그들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신설했음.
30	諸藝 (2)	

37) 趙珍, 「生態環境史研究與〈清史·生態環境志〉編纂」, 『清史纂修研究與評論』, 2012, pp.144-146.

38) 李治亭, 「新修〈清史〉傳記撰寫工作紀實」, 『清史纂修研究與評論』, 2012, pp.104-109.

〈표 5〉 ‘中華文史網’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내용

清史纂修	機構組織	국가청사찬수위원회 기구 조직도		
	纂修始末	清史稿	청사고 관련 (총 23편)	
		新中國清史纂修事業	신청사 관련 (총 45편)	
	體裁體例	調研彙叢	체제에 관한 연구 (총 15편)	
		名家研討	체제에 관한 명가의 연구 토론 (총 32편)	
	新聞中心	국가청사찬수공정의 주요소식과 국내외 학계의 관심 청사찬수 정황 등(총 560)		
	出版信息	청사 관련 서적 출판 소식		
圖書評論	청사 관련 서적 평론			
清史研究	專題研究	11개 분야의 주제별 연구 논문 (총 4155편)		
	文獻당안	당안利用	(총 263편)	
		文獻整理	옛 문헌에 대한 연구나 문헌 자료에 대한 설명 등 (총 290편)	
		清史著述	청 당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청대 역사 관련 저술 총 (359편)	
	學林漫步	研究機構	(國內研究機構/海外研究機構) 국내외 청사연구 관련 기구	
		學者書林	청사 편찬과 연구에 관련된 학자들 소개 (총 166명)	
研究刊物		중국사 주요 간행물 목록 (총 25개)		
資源在線	주요 청사 전문가와 학계인사가 제공한 청사를 위주로 한 사적과 자료 (총 418편)			
文史叢萃 ⁴¹⁾	目錄征集	각 종 문헌의 목록 모음(총 47개)		
	叢書文獻	총서문헌. 청실록, 청사고, 당안 사료 등 포함 (총 81편)		
	古典文獻	고전문헌. 사고전서 등 포함 (총 46편)		
	現代研究	사료나 고전 문헌에 대한 현대 연구 (총 141편)		
	地方志類	지방지 사료 (총 64편)		
	海外	해외 연구 (총 44편)		
	明史書籍	명사관련 서적 (총 28편)		
	綜合類史書	종합류 사서. 시대 상관 없음 (총 124편)		
期刊叢編 ⁴²⁾	《史苑》	중화문사망의 전자 간행물		
	《清史鏡鑒》	《清史參考 ⁴³⁾ 》중 주요 내용을 편집한 간행물		
	《清史學術研究專號》	청사 학술연구의 특집호		
	《清史論著索引 ⁴⁴⁾ 》	여러 가지 논문, 논저 색인		
書目查詢	접속 불가			
數字圖書館	전문수사전문가들에게 제공되는 청대 각 종류의 당안, 실록, 기타 주요 문헌 자료 ※ 회원 가입 없이는 접근 불가			
專題研究	‘清史研究’ 항목의 ‘專題研究’와 동일			
出版信息	‘清史纂修’ 부분의 ‘出版信息’와 동일			

41) 중화문사망 편집부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자료가 아닌 일반인들이 올리는 자료, 회원 가입 후 자료를 다운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42) 중화문사망 내에서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는 간행물.

43) 청사찬수조직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편찬한 청대 정치, 경제, 사상문화, 군사 등 각 분야 자료와 연구를 망라한 간행물

44) 중화문사망 ‘청사논문색인’에서 수집한 것 이외의 논문과 논저들을 소개한 간행물.

文史綜覽	教林學海	시대에 상관없이 총체적인 중국사 연구 (총 1212편)
	熱點學術	학술계의 화두 (총 39편)
	論著索引	연구 논저 색인 (총 114편)
公告欄	공고란, 공지사항(사이트)	
新聞中心	'清史纂修' 부분의 '新聞中心' 과 동일(학계)	
最新內容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록	
電子信箱	投稿征集	원고 투고 관련
	投稿聲明	
FAQ	질문과 답변	
在線調查	설문조사	
留言板	글 남기는 곳	
網站地圖	전체적인 사이트맵	
友情	관련사이트	
笑于我們	사이트 소개	

에 쉽게 압도당하기 쉬우나, 2010년 이후부터 업데이트되는 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清史에 관한 연구, 문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등재된 자료는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10월 현재 '중화문사망'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카테고리와 주요 내용, 그리고 각 카테고리에 등재된 글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그림은 '中華文史網' 홈페이지 첫 화면)

디지털 시대에 '중화문사망' 홈페이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중화문사망' 에 등재되는 청사 관련 연구 성과물이 실재 <청사공정>과 시기 별, 주제별 밀착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의 '清史研究' → '專題研究' 로 진입하면 11개 분야의 주제별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⁴⁵⁾ 전체 논문 편수는 4,155편으로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발표 년도를 확인해 보면 <청사공정>이 시작된 2002년 이후의 연구보다 그 이전의 연구 성과가 더 많다. 가령 11개 주제 가운데 하나인 '軍事' 를 보면, 하위 범주 7개 주제(太平天國, 湘軍·捻軍·回軍, 洋務·海軍, 義和團, 辛亥革命, 臺灣, 기타)가 대부분 아편전쟁 이후에 해당한다. 진근대 청조의 군사 관련 논문은 전체 74편 가운데 기타와 臺灣 관련하여 5편 뿐이다. 논문의 발표 연도 역시 1980~90년대가 가장 많고, 2000년대 이후의 성과는 74편 중 15편에 불과하다. <청사공정>이 시작된 2002년 이후로 軍事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단 6편으로, 전체 74편 가운데 8%에 불과하다. 다른 주제인 '中外關係' 역시 균형감이 약한 듯하다. 총 351편의 논문을 일람해보면, 대상 국가로 일본(58) 관련 연구가 가장 많

45) 11개 분야는 政治(1252), 社會史(672), 經濟(269), 思想文化(770), 軍事(74), 邊疆民族(247), 홍콩 마카오 대만(116), 中外關係(351), 외국인인 본 중국(65), 史學史(146), 기타(193)로 구분되어 있다. ()안의 숫자는 해당 분야에 등재된 논문 편수로, 총 4,155편이다.

고, 그 다음은 영국(41), 러시아(30), 미국(19), 프랑스(19) 순이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3편의 논문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351편 가운데 3.7%에 불과한 미미한 비중이다. 등재된 논문이 대부분 近代 이후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균형감이 결여된 것은 분명하다. 논문의 발표 연도를 보면, 총 351편 중 1970~1980년대 논문이 23편이고, 1990년대 논문이 146편, 2000년대 이후 논문이 147편이며, 정확하게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논문이 35편이다. 구체적으로 <청사공정>이 시작되기 전인 1994년에서 2001년까지 발표되었던 논문이 194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55%)을 차지하고 있고, 2003년 이후의 연구 성과는 66편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특히 2010년 이후의 연구결과는 불과 5편밖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중화문사망’의 업데이트가 지체되는 것인지 실제 <청사공정> 진행 이후 연구보다 저술로 비중이 변환되기 때문인지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시기별, 주제별 불균형성은 다른 9개 주제에서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중화문사망’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자료가 외부에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의 ‘數字圖書館’에는 <청사공정>의 진행과 함께 수많은 문헌과 당안 자료가 디지털 자료로 전환되어 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第一歷史當安館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당안館과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그리고 대만과 일본 등의 자료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⁴⁶⁾ 하지만 아직까지 <청사공정>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만 열람권이 부여되고 있고, 일부 극소수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 연구자에게도 열람권을 부여해주고 있다.⁴⁷⁾ 향후 이 방대한 淸史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수많은 소장 기관의 이해관계가 착종해 있는 만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역사 연구의 수준이 자료의 확보 능력과 직결된다고 볼 때, <청사공정>을 통해 구축한 청사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중국이 청사 연구의 주도권을 쥐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청사공정>의 어두운 그림자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청사공정>이 과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상기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청사공정>이 시작된 직후인 2003년 10

46) Mao, Liping & Ma, Zhao, “Writing History in the Digital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and the Digitization of Qing Archives”, *History Compass*, Vol. 10 : Number 5, 2012.

47) Beatrice S. Bartlett, “The Newly Digitized Archives Program at China’s Number One Historical Archives, Beijing”, *Late Imperial China*, Volume 32, Number 1, June 2011, pp. 1-12.

월, 대만의 佛光大學에서 개최된 第一屆清史學術研討會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이지⁴⁸⁾ 한국의 여러 청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구심이기도 하다. 실제 <청사공정>의 추진 과정을 보면 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⁴⁹⁾ 만약 <청사공정>의 최종 목적이 바로 청조가 최대의 영역과 大一統을 확보한 다민족 통일국가였고, 그것을 현대 중국에 전해 주었다는 업적이 있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한다면, 새로 나온 '청사'는 官撰正史라기보다는 '欽定'으로 보아야 할지 모른다.⁵⁰⁾ 이러한 '영토주의적' 역사 해석은 '중화민족'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과거로의 적용을 통해 '신중화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직 새로운 '청사'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우려를 예감하게 하는 징후들을 발견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생각한다. 가령 최근 청대의 변경 정책을 "大一統" 이념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연구가 연달아 나왔다. 雲南省에 연고를 둔 연구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필자들은 북경 사회과학원과 길림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이자 <청사공정>의 핵심 인물이다.⁵¹⁾ 과연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국가의 '간섭' 내지는 '후원'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설령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의 중점 연구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청대 주변국과의 관계성을 얼마나 역사적 현실에 맞추어 적실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이러한 국가와 학자 사이의 은밀한 '유착' 관계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성과가 최근 『歷史당안』(2012년 제1집)에 발표되었다.⁵²⁾ 저자 孫喆은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부교수로, 그의 연구는 中國人民大學 "985工程"의 결과물이었다. 즉 최근 <청사공정>에 깊숙하게 개입된 연구자와 연구소의 집단 연구 방향의 한 성과물인 셈이다. 주제는 강희연간 제작된 <皇輿全覽圖>에 대한 동기 분석이었다. 내용인 즉, 康熙47년(1708)부터 청 조정은 전국적으로 10년에 걸친 대규모 측량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皇輿全覽圖>를 제작했다. 이는 청대 지리학의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나, 과연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물론 이는 당시 측량술을 비롯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측면도 있으나 뒤에 가려진 정치적인 동기도 간과할 수 없다. 저자는 이를

48) 華立, 「臺灣佛光大學〈第一屆清史學術研討會〉參加記」, 『滿族史研究』 3, 2004.

49) Zhao Ma,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A PROSPEROUS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Vol. 29 Issue 1, 2008, pp.123-126.

50) 김형중,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청사편수- '신청사' 평판토론에 나타난 중국 학계의 반응 분석」,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112-113.

51) 李治亭, 「論清代邊疆問題與國家"大一統"」, 『雲南師範大學學報(哲社版)』 2011-1; 何星亮, 「"大一統"理念與中國少數民族」, 『雲南社會科學』 2011-5. 何星亮은 中國社會科學院 民族學與人類學研究所 연구원이다.

52) 孫喆, 「淺析影響康熙《皇輿全覽圖》繪制的幾個因素」, 『歷史당안』 2012-1.

“과학과 정치가 완벽하게 융합된 성공적인 典範”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정치’란 바로 새로 확장된 邊疆에 대한 통치자의 통치 의지였고, ‘과학’이란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술적 지원이었다. 강희 후반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네르친스크 조약 때에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를 통해 강희제의 “保教”라는 시혜를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었다. 저자 孫喆의 지적은 예리하지만, 이를 통해 청 정부와 예수회 선교사의 ‘유착’ 관계 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 정부와 <청사공정> 학자들의 ‘유착’ 관계를 이중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필자만의 오해일까?

이것이 오해인지 아닌지는 임박한 <청사공정> 결과물의 공개를 통해 깔끔하게 해명될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청사공정>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2012년까지 대략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공언했으나, 2012년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 ‘중화문사망’은 물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그 결과물은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원고가 다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컨대 공모와 위탁이라는 방식을 혼용하여 완성된 원고, 게다가 3천만 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글을 수미일관한 문체와 관점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강한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청사공정>이 출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청사고』의 졸속 출판에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청사』의 출판을 앞두고 가장 큰 족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청사공정>의 결과물을 기다리게 된다.

[부록 1] 『清代당안史料叢編』(社會科學院 清史研究室 · 中國第一歷史當安館) 1-14권 전체 목록

<1권>

▶ 太平天國時期清政府的財政狀況 ▶ 辛酉政變 ▶ 洪全福起事 ▶ 順治朝繼續加派遼餉練餉

<2권>

▶ 李沅發起義 ▶ 關於高欒的一些當安史料

<3권>

▶ 清茶門教 ▶ 有關清初鎮壓明宗室反抗的史料 ▶ 光緒二十三年山東教案的史料
▶ 道光, 同治, 光緒三朝觀測預報日食, 月食的史料 ▶ 清代曆史當安名辭簡釋
▶ 故宮明清當安部所存主要當安述略 ▶ 故宮明清當安部所藏當安的過去和現在

<4권>

▶ 順治十八年加派練餉 ▶ 順治年間的圈地和投充 ▶ 順治年間清查起科明藩田產
▶ 新發現的太平天國文書 ▶ 清代起居注 ▶ 從明清當安部所藏當安文獻中看清朝秘密立儲制度
▶ 清代曆史當安名詞簡釋

<5권>

- ▶ 徐乾學被控魚肉鄉里荼毒人民狀 ▶ 乾隆朝旗民佃戶等抗租霸地私典地畝的鬭爭
- ▶ 乾隆年間籌辦京差車輛情況 ▶ 新發現的有關太平天國北伐的史料
- ▶ 京城巡防處당안選編
 - (一)京城巡防王大臣曲奏報(共八件)
 - (二)京城巡防處審錄太平軍人員供詞(共十七件)
 - (三)京城巡防各路及各州縣探報
- ▶ 勝保被參拿問案 ▶ 咸豐四年穿戴당안 ▶ 太平天國文書制度

<6권>

- ▶ (關於明末農民起義的)明代당안史料 ▶ (關於明末農民起義的)清代당안史料

<7권>

- ▶ 順治年間驛遞 ▶ 順治年間制錢的鼓鑄 ▶ 順治十七年尚衣監行文知會簿 ▶ 定南將軍文移稿
- ▶ 有關阿睦爾撒納的당안史料 ▶ 承德布達拉廟 ▶ 乾隆四十八年銷毀書目 ▶ 同治進藥簿
- ▶ 清代曆史당안名稱簡釋(續二) ▶ 明清誥勅命文書簡述

<8권>

- ▶ 東三省辛亥革命史料 ▶ 東三省調拔槍械支援清廷史料 ▶ 東三省調派援直軍隊及組織勤王師史料
- ▶ 蒙旗叛亂及私運槍械史料 ▶ 宗社黨史料 ▶ 有關各省的辛亥革命史料 ▶ 趙爾巽全宗당안概述

<9권>

- ▶ 順治朝朱諭 ▶ 大學士李光地奏折 ▶ 大學士王昶奏折 ▶ 雍正朝朱筆引見單
- ▶ 乾隆末年白蓮教秘密反清鬭爭 ▶ 周福清科場賄賂案 ▶ 清民政部簡述 ▶ 清代內務府沿革初探

<10권>

- ▶ 順治年間茶馬之制 ▶ 順治年間的逃人問題 ▶ 康熙朝黃冊中有關科舉考試史料
- ▶ 乾隆四十八年節次照常膳底당(節選) ▶ 毅軍紀略 ▶ 北洋練兵案

<11권>

- ▶ 崇德七年奏事당 ▶ 使交紀事 ▶ 乾隆六年戶部寶泉局工匠罷工工匠爭史料
- ▶ 乾隆年間修改雇工人條例史料 ▶ 咸豐年間推行官票史料 ▶ 同治年間東北人民反清鬭爭史料
- ▶ 清末整頓圓法改革幣制史料 ▶ 清末京師醫局局당안史料拾零 ▶ 清代曆史당안名稱簡釋(續三)

<12권>

- ▶ 乾隆朝陶瓷史料 ▶ 乾隆朝內地與新疆絲綢貿易史料 ▶ 大學堂經費問題史料
- ▶ 朝陽金丹道教起義史料

<13권>

- ▶ 順治初年籠絡與控制漢族官紳史料 ▶ 順治親政後漢官被劾案 ▶ 乾隆初年准噶爾進使進藏熬茶史料
- ▶ 乾隆十二年安邑萬泉聚眾抗糧案 ▶ 광서二十四年潯陽起義 ▶ 清庭收撫馮麟閣史料
- ▶ 清代曆史당안名稱簡釋(續四) ▶ 五國公使覲見同治帝交涉始末

<14권>

- ▶ 盛京滿文逃人당 ▶ 盛京滿文清軍戰報 ▶ 盛京吏戶禮兵四部文 ▶ 康熙四十六年九月記注당册
- ▶ 乾隆年間治理湖南苗疆史料 ▶ 咸豐八年順天鄉試科場案 ▶ 出國遊學生等致瑞方函札

【부록 2】『淸史資料』(歷史研究所 淸史研究室) 1-7권 전체 목록

<1권>

- ▶ 榕城紀聞：(明)海外散人 撰 ▶ 寇變紀 ▶ 淸初二變小乘：(明)陳鴻, 陳邦賢 撰
- ▶ 康熙正靖小紀：(明)陳鴻, 陳邦賢 撰 ▶ 二變紀事：(明)餘揚 撰
- ▶ 瀨江紀事本末：(明)周廷英 撰 ▶ 崇文門外萬全堂藥鋪資料輯錄
- ▶ 朝鮮族《通州康氏世譜》中的明滿關係史料：(明)康世爵 等 撰
- ▶ 康熙帝傳：(法)白晉(Bouvet) 著

<2권>

- ▶ 江蘇山陽收租全案：(淸)李程儒 輯 ▶ 孫思克行述：(淸)俞益謨 撰
- ▶ 襄勤伯鄂文端公年譜：(淸)鄂容安 等 撰 ▶ 金沙細唾：(淸)於墉 撰
- ▶ 撫浙檄草(選錄)：(淸)秦世禎 撰 ▶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季永海 著

<3권>

- ▶ 破邪詳辯：(淸)黃育[木便] 撰 ▶ 疏稿(選錄)：(淸)胡文學 撰
- ▶ 撫遠大將軍奏議：(淸)愛新覺羅胤禎 撰 ▶ 西江視臚紀事(選錄)：(淸)凌[火壽] 撰
- ▶ 平南紀略：(淸)蔡毓榮 撰 ▶ 銀譜：(淸)寧壽堂 撰

<4권>

- ▶ 大義覺迷錄：(淸)雍正皇帝 撰 ▶ 嶽襄勤公行略 ▶ 畏齋日記：(淸)詹元相 撰

<5권>

- ▶ 《黑圖堂》中有關莊園問題的滿文당안文件彙編
- ▶ 張誠日記
 - 耶士會士, 法國在華傳教士張誠달단旅行記 (法)張誠(Gerbillon) 撰
 - 1691年張誠神甫第三次去달단地區旅行 (法)張誠(Gerbillon) 撰
 - 1692年張誠神甫第四次去달단地區旅行 (法)張誠(Gerbillon) 撰

<6권>

- ▶ 浮山文集後編：(淸)方以智 撰 ▶ 浮山此藏軒別集：(淸)方以智 撰
- ▶ 耶士會士書簡集中國書簡選 (選譯)
 - 安菲特立特號首航中國
 - 安菲特立特號二航中國
 - 法國北京傳教團的創始
- ▶ 張誠日記(續)
 - 1696年張誠神甫第五次隨從中國皇帝去달단地區旅行 (法)張誠(Gerbillon) 撰

<7권>

- ▶ 有關玉米, 番薯在我國傳播的資料：郭松義, 鄧自 編

[부록 3] 당안組에서 편찬한 당안 자료 목록, 2003-7

- ▶ 中國第一歷史當안館, 『庚子事變清宮當안彙編』 18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 ▶ 中國第一歷史當안館·承德市文物局, 『清宮熱河當안』, 18卷, 中國當안出版社, 2003
- ▶ 中國第一歷史當안館, 『清宮普寧寺當안』, 2卷, 中國當안出版社, 2003
- ▶ 中國第一歷史當안館, 『清代中南海當』, 30卷, Xiyuan chubanshe, 2003
- ▶ 『清代軍機處電報當안彙編』, 40卷,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
- ▶ 은毓鼎, 『은毓鼎澄齋日記』, 2卷, 浙江古籍出版社, 2004
- ▶ 李慈銘, 『越間堂日記』, 18卷, 廣陵書社, 2004
- ▶ 『陳寶箴集』, 汪叔子·張求會 編, 3卷, 中華書局, 2004-05
- ▶ 王寶平 編, 『晚清東游日記彙編』, 2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 『薛福成日記』, 蔡少卿·江世榮 編, 2卷, 吉林文史出版社, 2004
- ▶ 『新編汪中集』, 田漢云 編, 廣陵書社, 2005
- ▶ 『黃遵憲全集』, 陳錚 編, 2卷, 中華書局, 2005
- ▶ 『清代蒙藏回部典彙』, 75卷, 中華書局, 2005
- ▶ 『文津閣四庫全書: 清史資料彙刊』, 131卷, 商務印書館, 2005
- ▶ 章開沅·羅福惠·嚴昌洪 編, 『辛亥革命史料新編』, 8卷, 湖北人民出版社, 2006
- ▶ 『翁同和集』, 謝俊美 編, 2卷, 中華書局, 2005
- ▶ 『寶應劉氏集』, 2卷, 2006
- ▶ 『李鴻章全集』, 顧廷龍·戴逸 編, 38卷, 安徽教育出版社, 2007
- ▶ 劉路·Frances Wood, 『帝國掠影: 英國訪華使團畫筆下的清代中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 ▶ 天津市當안館 編, 『券證遺珍: 天津市當안館藏清代商務文書圖錄』,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 天津圖書館 編, 『水道尋往: 天津圖書館藏清代輿圖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 遼寧省圖書館 編, 『盛京風物: 遼寧省圖書館藏清代歷史圖片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 ▶ 旅順博物館 編, 『滿鐵舊影: 旅順博物館藏滿鐵老照』,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부록 4] 國家清史編纂委員會 『編譯叢刊』 출판 서목

번호	저자	국적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1	李明 (Louis Le Comte)	프랑스	『中國近事報道』 (Nouveaux memoires sur l'état présent de la Chine)	大象出版社	2004
2	安文思 (Gabriel de Magalhães)	포르투갈	『中國新史』 (A New History of the Empire of China)	大象出版社	2004
3	梅爾清 (Tobie Meyer-Fong)	미국	『清初양州文化』 (Building Culture in Early Qing Yangzhou)	復旦大學出版社	2004
4			『八國連軍占領實錄:天津臨時政府會議記要』(上下册) (Procès-verbaux des Séances du Gouvernement provisoire de Tientsin)	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	2004
5	曾小萍 (Madeleine Zelin)	미국	『州縣官의 銀兩 - 18世紀中國의 合理化財政改革』 (The Magistrate's Tael: Rationalizing Fiscal Reform in Eighteenth Century Ch'ing China)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
6	余改思 (Klaus Muhlhahn)	독일	『在“模範殖民地”膠州灣의 統治與抵抗 - 1897~1914年中國與德國의 相互作用』 (Herrschaft und Widerstand in der "Musterkolonie" Kiautschou: Interaktionen zwischen China und Deutschland 1897-1914)	山東大學出版社	2005
7	赫德 (Sir Robert Hart)	영국	『這些從秦國來 - 中國問題論集』 (“These from the land of Sinim”: essays on the Chinese question)	天津古籍出版社	2005
8	李提摩太 (Timothy Richard)	영국	『親歷晚清四十五年 - 李提摩太在華回憶錄』 (Forty-five years in China: reminiscences)	天津人民出版社	2005
9	羅威廉 (William T. Rowe)	미국	『漢口: 一個中國城市的商業和社會(1796-1889)』 (Hankow: Commerce and Society in a Chinese City, 1796-1889)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5
10	魏若望 (John W. Witek)	미국	『耶穌會士傳聖神甫傳: 索隱派思想在中國及歐洲』 (Controversial Ideas in China and in Europe: A Biography of Jean-Francois Foucquet, S.J., (1665-1741))	大象出版社	2006
11	杜格爾德·克里斯제 (Dugald Christie)	영국	『奉天三十年(1883-1913) - 杜格爾德·克里斯제의 經歷與回憶』 (Thirty years in Moukden, 1883-1913, being the experiences and recollections of Dugald Christie)	湖北人民出版社	2007
12	高華士 (Noel Golvers)	벨지움	『清初耶穌會士魯日清常熱帳本及靈修筆記研究』 (Francois de Rougemont, S.J., Missionary in Ch'ang-shu (Chiang-Nan): A Study of the Account Book (1674-1676) and the Elogium)	大象出版社	2007
13	安岡昭男	일본	『明治前期中日笑系史研究』	福建人民出版社	2007
14	佐藤公彦	일본	『義和團의 起源及其運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15	尼古拉·阿多拉茨基 (Nikolai, hieromonach)	러시아	『東正教在華兩百年史』	掩東人民出版	2007
16			『美國政府解密檔案: 美國駐中國掩州領事館領事報告(1870 - 1906)』(影印全25册)	掩西師范在大學出版社	2007

번호	저 자	국적	제 목	출판사	출판년도
17	何偉亞 (James L. Hevia)	미국	『英國의 科亞 : 19世紀中國의帝國主義教程』 (English Lessons: The Pedagogy of Imperialism in Nineteenth-Century China)	社會科學文獻 出版社	2007
18	托米·本特森 等 (Tommy Bengtsson)	스웨덴	『壓力下的生活: 1700-1900年歐洲與亞洲的死亡率和 生活水平』 (Life under Pressure: Mortality and Living Standards in Europe and Asia,1700-1900)	社會科學文獻 出版社	2007
19	威廉·埃德加·盖洛 (William Edgar Geil)	미국	『揚子江上的美國人 - 從上海經華中到緬甸的旅行記錄 (1903)』 (A Yankee on the Yangtze: being a narrative of a journey from Shanghai through the central kingdom to Burma)	山與畫報出版社	2008
20	威廉·埃德加·盖洛 (William Edgar Geil)	미국	『中國十八省府』 (Eighteen Capitals of China)	山與畫報出版社	2008
21	羅威廉 (William T. Rowe)	미국	『漢口 : 一個中國城市的衝突和社區(1796-1895)』 (Hankow: Conflict and Community in a Chinese City, 1796-1895)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08
22	米·約·斯拉德科夫斯基	러시아	『俄國各民族與中國貿易經濟史(1917年以前)』	社會科學文獻 出版社	2008
23	步德茂 (Thomas M. Buoye)	미국	『過失殺人, 市場與道德經濟: 18世紀中國財產權的暴力糾紛』 (Manslaughter, Markets, and Moral Economy: Violent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in Eighteenth-Century China)	社會科學文獻 出版社	2008
24	森田明	일본	『清代水利與區域社會』	山與畫報出版	2008
25			『中國總報』(影印全21冊)	掩西師范在大學 出版社	2008
26	王亞健 (Wang Yeh-Chien)	미국	『清代田賦芻論(1750-1911)』 (Land Taxation in Imperial China (1750-1911))	人民出版社	2008
27	龍伯格 (Knud Lundbæk)	덴마크	『清代來華傳教士馬若瑟研究』 (Joseph de Prémare, 1666-1736, S.J.: Chinese philology and figurism)	大象出版社	2009
28	柯蘭露 (Claudia von Collani)	독일	『耶穌會士白晉的生平與著作』 (P. Joachim Bouvet S.J. Sein Leben und sein Werk)	大象出版社	2009
29	伊夫斯·德·托米斯·德· 博西耶華夫人 (Yves de Thomaz de Bossierre)	프랑스	『耶穌會士張城 - 路易十四派往中國的五位教學家之一』 (Jean-Francois Gerbillon, S.J. (1654-1707))	大象出版社	2009
30	羅友枝 (Evelyn S. Rawski)	미국	『清代宮廷社會史』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09
31	孟澤思 (Nicholas K. Menzies)	미국	『清代森林與土地管理』 (Forest and Land Management in Imperial China)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09
32	穆親潔 (Sucheta Mazumdar)	미국	『中國: 糖與社會 - 農民, 技術和世界市場』 (Sugar and Society in China: Peasants, Technology and the World Market)	掩東人民出版	2009
33	司徒琳 (Lynn A.Struve)	미국	『世界時間與東亞時間中的明清變遷』(上下卷)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East Asia from Ming to Qing)	三聯書店	2009

번호	저 자	국적	제 목	출판사	출판년도
34			『奉天國際鼠疫會議報告(1911)』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held at Mukden, April, 1911)	中央編譯出版社	2010
35	岸本美序	일본	『清代中國의 物價與經濟波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36	西里喜行	일본	『清末中琉日關係史研究』(上下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37	李祠熙 (Joseph Tse-Hei Lee)	미국	『聖經與槍砲 - 基督教與潮州社會(1860-1900)』 (The Bible and the gun: Christianity in South China, 1860-190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38	阿·科爾薩克 (Korsak, A.)	러시아	『俄中商貿笑史述』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39	娜·費·杰米多娃 (Demidova, N. F) 등	러시아	『在華俄國外交使者(1618-1658)』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40	路康樂 (Edward J. M. Rhoads)	미국	『清與漢：清末民初의 族群笑系與政治權力(1861-1928)』 (Manchus &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41	庄士敦 (Reginald Fleming Johnston)	영국	『儒學與近代中國』 (Confucianism and Modern China)	天津人民出版社	2010
42	井上裕正	일본	『清代鴉片政策史研究』	西藏人民出版社	2011

참고문헌

- 정혜중, 「중국에서의 『청사고』 연구와 평가」,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유장근,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청사 연구동향과 만주족의 지배 문제」,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허혜윤,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중국근현대사연구』 42, 2009
- 허혜윤,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역사비평』 2008년 봄호
- 조영현,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중 외 지음,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준갑,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상황, 2002-2009」, 김형중 외 지음,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형중,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청사편수 ‘신청사’ 평찬토론에 나타난 중국 학계의 반응 분석」, 정혜중·김형중·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윤휘탁,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서울: 푸른역사, 2006
- 정석범, 「康雍乾時代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미술사학』 23, 2009
- 于沛, 「關於纂修清史“世界眼光”的思考」, 陳捷先等主編, 『清史論集』上, 人民出版社, 2006
- 莊吉發, 「從現存史館黨看清史的編修」, 陳捷先等主編, 『清史論集』下, 人民出版社, 2006
- 鄒愛蓮, 「清史編修工程與黨內的整理利用」, 陳捷先等主編, 『清史論集』下, 人民出版社, 2006
- 馮明珠, 「從《清史》到《清史稿校注》—“中華民國政府”遷臺後整編《清史》之經過」, 陳捷先等主編, 『清史論集』下, 人民出版社, 2006
- 李治亭, 「論清朝的歷史地位」, 『社會科學戰線』 2010-5
- 李治亭, 「論清代邊疆問題與國家“大一統”」, 『雲南師範大學學報(哲社版)』 2011-1
- 馮爾康, 「清史研究與政治」, 『史學月刊』 2005-3 찾아보기
- 何星亮, 「“大一統”理念與中國少數民族」, 『雲南社會科學』 2011-5
- 葉高樹, 「最近十年(1998-2008年)臺灣清史論著目錄」, 『臺灣師大歷史學報』 40, 2008
- 馬大正, 「世界視野與清史纂修工程」,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戴逸, 「清朝的興盛, 衰亡」,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趙珍, 「生態環境史研究與《清史·生態環境志》編纂」,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李治亭, 「新修《清史》傳記撰寫工作紀實」,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朱誠如, 「從《圖錄叢刊》論圖像史學的勃興」,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劉潞·于慶祥, 「《圖錄叢刊》編纂八問答」,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李尙英, 「“中華文史網”與清史纂修」,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孫喆, 「淺析影響康熙《皇輿全覽圖》繪制的幾個因素」, 『歷史當安』 2012-1.
- 鄒愛蓮, 「日本關係清代黨안을めぐる國際研究集會報告 文化遺産の應急的保護 と清史編纂プロジェクト」, 『東京大學史料編纂所研究紀要』 20, 2010, pp.138-148
- 加藤直人, 「中日學者清史研究座談會—清史編纂をめぐる日中學術協力の可能性」, 滿族史研究會 編, 『滿族史研究』 4, 2005, pp.210-217

- 張永江 著, 村上信明 譯, 「近百年來における中國の清史編纂事業と最新の進展狀況(上)」, 『滿族史研究』 4, 2005
- 張永江 著, 大坪慶之 譯, 「近百年來における中國の清史編纂事業と最新の進展狀況(下)」, 『滿族史研究』 5, 2006
- 華立, 「臺灣佛光大學〈第一屆清史學術研討會〉參加記」, 『滿族史研究』 3, 2004
- Zhao Ma,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A PROSPEROUS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Vol. 29 Issue 1, 2008
- Beatrice S. Bartlett, “The Newly Digitized Archives Program at China’s Number One Historical Archives, Beijing”, *Late Imperial China*, Volume 32, Number 1, June 2011
- Mao, Liping & Ma, Zhao, “‘Writing History in the Digital Age’: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and the Digitization of Qing Archives”, *History Compass*, Vol. 10 : Number 5, 2012
- ZHOU AILIAN; HU ZHONGLIANG, “The Project of Organizing the Qing Archives”, *Chinese Studies in History*, Vol. 43 Issue 2, Winter 2009-10, p73-84. 12p.
- 정혜중 · 김형중 · 유장근,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형중 외 지음,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馬釗 主編, 『1971-2006年美國清史論著目錄』, 人民出版社, 2007
- 戴逸 編, 『簡明清史』(1,2), 北京, 人民出版社, 1980.
- 戴逸, 『乾隆帝及其時代』,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 戴逸 · 羅明 編著, 『清代人物研究』, 成都, 巴蜀書社, 1992.
- 陳樺, 戴逸 主編, 『18世紀的中國與世界—經濟卷』, 遼海出版社, 1999
- 陳捷先 等 主編, 『清史論集』 上下, 人民出版社, 2006
- 王鍾翰, 『清史滿族史講義稿』, 鷺江出版社, 2006
- 蕭一山, 『清代通史』(1-5), 臺灣商務印書館, 1962/1985
- 鄭天挺 主編, 『清史』 上, 天津人民出版社, 1989.
- 鄭天挺, 『清史探微』 (北大名家名著文叢), 北京大學出版社, 1999
- 馮爾康, 『雍正傳』, 北京, 人民出版社, 1985.
- 馮爾康 · 常建華, 『清人社會生活』, 天津人民出版社, 1990.
- 馮爾康, 『清人生活漫步』 (古代社會生活叢書), 中國社會出版社, 1999
- 馮爾康, 『清代人物傳記史料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國家清史編纂委員會體裁體例工作小組 編, 『清史編纂體裁體例討論集』 上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 國家清史纂修工程出版中心 · 吉林省社科院 社會科學戰線編輯部 編, 『清史纂修研究與評論』, 上海古籍出版社, 2012



Abstract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2002-2012

Young Hun Cho
(Korea University)

Keywords: new Qing history project, draft history of Qing, Qing dynasty and Manchu tribe

This article is the study of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whic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mbarked on in 2002 and is expected to release in 2012.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got attention for being the biggest Humanitarian and Social Science Project since the launching of the PRC in 1949.

The biggest reason why PRC. launched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in 2002 is because the Draft History of Qing (清史稿) has been criticized for having many flaws. There were criticisms that the Draft History of Qing overrated Qing dynasty and Manchu tribe while underrating revolutionary activities and the founding of Republic of China, and that it was based on poorly organized documents. Besides, it exposed the issue of incoherency in perspective. The Kuomintang of China (KMT)'s strong push for revision and new compilation did not yield a fruitful resul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s similar effort related to the Draft History of Qing was of little avail.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is the end result of this earlier trial and error. Since 2002,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ruled on organization, composition, writing style of New Qing History and collected scattered materials related with this project from China, Japan, Europe and so on. And many collected sources, archives, historical records, primary writing by foreigners, and illustrative sources are published through diverse kinds of series books.

It is true that there were great strides at collecting and announcing the material about the research of Qing History. However, since the state's power and capital have been immensely poured into this project, it is highly likely that covert alliances between the state and scholars affected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materials. 10 years into the business, the result of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has not arrived. The reason that this official announcement is delayed even with the enormous collecting of scripts may be that it is not easy to organize the incredible volume of material collected. Unfortunately, it will take much more time to finish its final editing.